

VR테라피를 이용한 감성 마사지 프로그램

어르신들, 독일의 베를린에 가다.

(2018.8.7.)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VR 테라피를 이용한 감성 마사지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셨지요?

오늘부터 한달간은 유럽을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럽 방문지는 독일의 베를린 이라는 도시입니다.

왜 베를린을 선택했나요?

구 사유는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다가 두 나라가 통일이 되어 합한 나라이지요.

바로 베를린은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합해질 때 두나라를 가르고 있던 경계철망이 무너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동독측과 서독측의 베를린이 합해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베를린 도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잘 정돈된 도시,
광장에 모여 있는 독일 사람들,
멋있는 도시의 풍경과 바닷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와 감독을 지낸 차범근 감독이
독일해서 큰 명성을 떨칠 때 바로 이곳 베를린에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활동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감상하시고
다시 독일의 명소 라인강변을 따라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진행순서

1. 먼저, TV를 통해 베를린의 보아야할 관광지 10곳의 모습을 TV로 보여준다
2. 진행자는 화면에 나타난 영상 10곳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해 준다.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TV 영상을 정지후 재생한다.)
3.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준비한 베를린 VR 영상을 감상한다.
4. 진행자는 베를린 관련 참고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베를린에 대한 설명을 한다.
5. 다음 질문들과 답변들로 대화를 나눈다.

[영상 관람 후 대화 주제]

1. 독일의 베를린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과 닮았나요?
2. 독일의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맥주, 폭스바겐 자동차, 철의 장벽 등
2. VR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3. 독일에서 활동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 차범근 씨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세요.

[베를린에 대한 참고자료] 베를린을 설명해 줄 때 참고할 자료입니다.

역사

1,500년 전에는 현재의 베를린 지역에 다양한 슬라브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독일인 정착자들이 1100년대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베를린은 이때까지만 해도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고, 슈프레 강의 북동쪽 독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슈프레 강의 섬에서 쾰른(Coelln)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두 마을은 통상의 중심지였다. 1307년에는 베를린과 쾰른이 그들의 공동 방어를 위한 연합을 설립하였고, 공동의 시청사를 지었다. 15세기에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 주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15세기 후반에는 호엔츨레른 왕가가 베를린을 그들의 관저로 만들었다. 30년 전쟁 중에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인구가 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베를린은 호엔츨레른 왕가의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아래 다시 번영하였다. 그는 브란덴부르크를 1640년부터 1688년까지 통치하였고, 산업을 촉진시키고 건설에 후원하였다.

그의 통치아래, 슈프레 강과 오테르 강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였다. 1701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아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1세가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1710년에는 베를린, 쾰른과 3개의 이웃 집단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베를린을 이루었다.

1700년대에 베를린은 작은 읍에서 번영하는 통상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증대하였다. 예술과 과학이 번창하였고, 산업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1806년부터 1808년까지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점령당하였고, 그가 떠나자 독일의 강국이 된 프로이센의 수도로 번영하였다.

그 후 1871년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되고 제2차 세계 대전 때까지 독일의 수도였다. 도시의 인구는 1871년에 826,000명에서 1910년에 2,076,200명으로 늘어났다.

불안한 시대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 말에 독일 제국이 무너졌고, 베를린은 새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에 파업, 폭동,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도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베를린은 계속 자라났고, 1920년에는 7개의 도시들, 59개의 마을, 27개의 소유지가 베를린에 합쳐졌다. 1930년대에는 전 세계로 번져간 경제 대공황에 의하여 타격을 받아, 후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이 세워지는 원인이 되었다.

분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다. 서베를린의 주권은 서독에 있었지만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 완전히 둘러싸인 월경지가 되었다. 동베를린은 동독의 수도가 되었고, 서베를린은 서독일의 수도가 되지않고 본이 서독일의 '임시 수도'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연합국 4개국이 베를린을 차지하여, 그들의 점령지를 4개로 나누었다.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동베를린 시민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61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웠는데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빌리 브란트는 바로 이 때 서베를린의 시장직을 역임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수도

1989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해체되고, 1990년 독일이 전격적으로 통일되면서 베를린은 연방 주 지위를 얻었다. 도시이자 독일의 연방주인 곳은 함부르크와 브레멘 뿐이다.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모두의 수도였기에 별다른 이견없이 1991년에 수도로 확정되었다. 현재 시장은 미하엘 뮐러(2014 ~)이다.

주민

본고장 독일인 이외에 인구의 15%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베를린에 근로자로 들어왔는데, 그 중의 절반은 터키인들이다. 베를린은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터키인들의 도시로 알려졌다. 또한 그리스, 이탈리아, 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러시아인들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들도 살고 있다. 베를린 시민의 25%는 개신교인 루터교 신자이고, 10%는 로마 가톨릭교회이다. 또한 유대교와 외국인 이민들에 의한 이슬람, 정교회도 존재한다.

문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독일 오페라의 중심지이며, 베를린 국제 영화제로도 유명하다.

경제

베를린의 노동자들은 금융, 보건, 부동산, 소매, 교통 등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있다. 베를린의 제조업은 독일이 통일된 이래, 쇠퇴하였다. 그러나 기계, 전기 제품, 화학 공업이 발달하였고, 식품 공업도 도시의 중요한 산업이다.

스포츠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르타 BSC 베를린이 있으며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